

<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>

진정한 회개와 복음



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잘못했을 때 권위와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
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.

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 자기 패배라고 생각하겠지만
하나님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.

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황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
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결국에는 할 수 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때조차도 그것이 내 허물이
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변명합니다.

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할 때
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.
회개는 스스로 죄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.
책임은 하나님이 저주시겠다는 것입니다.
이것이 복음입니다.

- 하용조